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10월 셋째주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10월 셋째주는 가을의 풍성한 감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소중한 때입니다. 10월 셋째주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일예배의 대표기도문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10월 셋째주 1: 감사와 찬양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 시편 105:1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개인적인 감사와 교회 공동체의 감사를 균형 있게 담아내어 수요일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수요일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들을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월 셋째주를 맞아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적절한 비를 통해 자라나 이제 황금빛 열매로 익어가는 것처럼, 저희 삶에도 주님의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허락해주시고,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사역과 각 부서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에 더욱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10월 셋째주 2: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마태복음 6:33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각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10월 셋째주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교회의 마음가짐과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이 수요일에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 균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축복해주시옵소서.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주시옵소서. 설교 준비와 심방, 상담 등 다양한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도우심이 함께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건강과 기쁨을 허락해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사랑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봉사과 섬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피곤함보다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가을 시즌을 맞아 교회 안에 감사의 분위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 이제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대면 예배와 각종 모임들이 정상화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로 등록한 성도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통해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들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에 대표기도문 10월 셋째주 3: 가정과 직장을 위한 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마태복음 11:28

일상의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10월 셋째주의 시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새로운 계획에 대한 기도를 포함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거룩한 수요일에 시간을 허락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을 특별히 축복해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사랑과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맞벌이 가정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가족 간의 소통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자 사는 성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직장 and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사회 정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직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구직 활동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일자리를 허락해주시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고, 장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10월 셋째주를 맞아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그동안 이루어온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겸손히 반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10월 셋째주 4: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마태복음 28:19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10월 셋째주라는 시기에 맞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가족과 친구, 동료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 시즌에 교회에서 준비하는 각종 전도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들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발걸음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허락해주시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협력하여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들과 선교 단체들을 특별히 축복해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선교 단체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기도와 격려를 통해 그들의 사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그리고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10월 셋째주 5: 회개와 새로운 결심의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요한일서 1:9

한 해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기도입니다. 10월 셋째주의 시기적 의미를 담아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깊이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0월 셋째주를 맞아 한 해의 대부분을 보내온 지금, 저희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감동과 열정을 잃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읽기, 예배 참석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용서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보여준 저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들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으며,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시옵소서. 특히 물질과 시간, 그리고 재능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웠던 부분들을 용서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잊고 마치 제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고 교회의 필요에 무관심했던 마음을 용서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는 일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한 해의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결심을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실천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에서도 단순한 출석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시고, 그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회개와 결심이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장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더 자세한 기도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